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마태복음

### 행복한 바보 (마 5:38-42)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율법은 그 이상의 보복과 복수의 비극이 번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자비의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인 주님께서서는 구약에 있는 그 자비의 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본문 39-41절에서 사랑과 긍휼의 법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본능은 복수와 응징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해야 속에 응어리진 한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더 큰 비극을 부르는 파괴행위일 뿐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더 많은 원수들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악과 복수의 피흘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롬 12:21), 잠언의 지혜자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의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 하시리라”라고(잠 20:22) 말씀합니다.

사울 왕의 집착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 무고한 다윗은 10년이 넘는 긴긴 세월을 광야와 늪지대와 동굴을 전전하며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를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오른뺨을 때리는 사울에게 왼뺨을 내어 줬습니다. 속옷을 빼앗는 사울에게 겹옷까지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2. 자기를 부인하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금전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욱 더 힘든 일이 있다면 자존심이 상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존심을 내려놔라.”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사신 모델이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온갖 능욕과 멸시를 했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며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침묵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므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무소부재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며,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바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한 바보, 거룩한 바보, 아름다운 바보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시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The Happy Fool (Matt. 5:38-42)

The Law, 'eye for eye,' is a righteous rule that reduces injury to a minimum by not over extending the tragedy by excessive retaliation and revenge. Nevertheless, we realize that Jesus, as a completer of the Law goes one more step further than the righteous law in the Old Testament.

1. Do not resist an evil person!

Though Jesus speaks of the law of love and righteousness in the text verses 39-41, our instinct follows the rule of excessive retaliation and punishment. We think that when we take revenge on someone, we are to fully revenge our feelings of hatred. By doing like this, we feel that justice will be done. However, revenge will only bring an activity of further destruction and cause a much bigger tragedy. Revenge bears another, and

makes even more enemies.

Now, Jesus says, "Do not resist an evil person!" "Love your enemies!" He also says that such behavior is the only way to stop the bleeding of evil and revenge. The Apostle Paul said,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Romans 12-21). The wisdom in Proverbs says, "Do not say, 'I'll pay you back for this wrong!' Wait for the Lord, and he will deliver you" (Proverbs 20-22).

Owing to King Saul's persistence, jealousy, and heartburning, David's life consisted of wandering from wild plains to swamp lands and even caves for a long period of time. For even more than ten years, he had to live his life like an animal. During that time, David had several chances to kill king Saul, but he did not kill him.

David did not pay back an 'eye for eye.' He rather turned his other cheek to the man who smote him on his right one. He gave his cloak to Saul who took his tunic. The Bible says, David was an harmonious man with the heart of God.

2. Deny yourself!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 16-24).

The fact that anyone denies himself means he must first put down his pride. If someone has a difficulty with a monetary problem, or has difficult with physical sufferings, then these will be the very reasons for prideful hurt to arise. However, Jesus tells us, "Deny yourself! Put down your pride!" Jesus Christ is our model who denies Himself and lives His life. Even though people pointed their fingers at Jesus, spat on Him, smote His cheeks, assaulted and brutalized Him in many ways, and looked down upon Him, He did not resist anything, or anyone, and was silent like a sheep in front of the sheep shearers.

When we deny ourselves and take up our cross, though people do not understand us, God who is in Heaven looks at us, listens to us, and knows us. Therefore, the omniscience and omnipotent God, the Creator and glorious God, who is the source of all blessings, sees and rewards us in secret, and the God of love and justice, will care for us fully.

My beloved Christians!

The people in the world may call us fools for living our lives like this. But we are happy, holy, and wonderful people for doing so. With cleanliness, knowledge, patience, mercy, the inspiring of the Holy Spirit, truthful love, even though we may be worried, we can always rejoice. As poor as we may seem to be, we can make many people rich: even though we may seem to have nothing, inside we are full, and rich and happy. By living such a life, I earnest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the wonderful and blessed people of God.

# 제31학기 서울성경대학 2012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개강

3월5일(월) - 마가복음반을 시작으로

2012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의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은 3월5일(월) 개강하여 5월13일(주일)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은 성도와 이웃 주민이 함께

좋은 강의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되고 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번 기회에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되기를 소원한다.

강좌	요일및시간	담당	장소
마가복음반	월 오전 10:00-11:00	유문건 목사	602호
에스더반	목 오전 6:00-7:00	박진아 목사	602호
느헤미야반	금 오전 6:00-7:00	오세광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 (20주)	목 오전 10:30-12:00	황 광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9호
주중 교사 양성반	금 오후 7:00-8:00	교역자 전체	503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오후1:00	한상은 목사	601호
살름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1:00	서명철 목사	101호
선교대학	월 오후 7:00-8:30	박진아 목사	602호
교교마가배학교	화 오전 10:30-12:00	최인에 전도사	706호
영어성경공부반	수 오후 8:10-9:30	Steven Martinolich 목사	603호
서울음악학교(10주간)	주일 오후 1:30-3:00 (3/11 - 5/13)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간)	주일 오후 12:40-1:40 (3/11 - 4/8)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화교실 초·중급반(12주간)	초급반: 주일 오후 12:50-1:50 (1/8-6/24) 중급반: 주일 오후 4:00-4:50 (1/8-6/24)	임규현 목사	606호
		임규현 목사	606호

##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37]

(문 32) 레위와 모세 사이는 출애굽기 6:16-20에 의하면 3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다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답) : 모세 오경에 있는 족보들의 대부분이 부족이나 씨족 또는 가족의 족보를 출 6장처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족보기록방법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애굽왕의 족보에서 19대 왕조의 람세스 2세와 21대 왕조의 왕들 사이에 이름들이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G.E. Wright, ed.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1961), pp. 206-7)

출애굽기 6:16-20에 의하면 모세의 족보는 레위-고핫-아므람(요게벳과)-아론과 모세로 되어 있습니다. 민 3:27-28에 의하면 고핫에게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 헤브론 종족, 웃시엘 종족이 있는데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8,600명이었고, 아므람은 8,600의 1/4인 2,150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한 가족 안에 2,000명 이상의 형제가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그토록 많은 자손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역대 상에는 많은 족보들의 기록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과 모세의 세대 사이에 9대 또는 10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역대상 7:25은 에브라임-브리아-레바-레셀-델라-다한-라단-암미훗-엘리사마-눈-여호수아 즉 에브라임과 여호수아는 10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31:2-11에 의하면 성막을 설계한 브살렐은 야곱으로부터 7대손이었다고 합니다.(대상 2:1, 4-5, 9, 18-20) 민수기 1:10에서 언급된 엘리사마는 야곱으로부터 9대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대상 7:22-27)

따라서 야곱과 모세 사이는 적어도 9대 또는 10대의 세대 차가 있는 것이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한 430년의 세월과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대략 1,875 B.C부터 1,445 B.C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세대가 약 43년이 됩니다. 70인역 성경은 출 12:40을 215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럴 경우 한 세대를 21년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살렐과 여호수아의 대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70명(또는 75명)의 야곱 가족이 모세 때에는 200만 명이 넘는 대가족이 된 것도 그만큼 시간적 길이와 세대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 캄보디아 선교지, 우물 파기 현지 답사



건축될 교회를 돌볼 현지인 사역자를 위한 기도



캄보디아 이재물 선교사



이갑진 장로와 이재물 선교사가 인도하는 제자훈련 생도들



전호진 선교사가 총장으로 있는 캄보디아장로교신학교 방문



2011년 10월 서울교회의 지원으로 완공된 생명의 우물 1호

자세한 선교보고는 다음주 순례자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엘리베이터  
이렇게 사용합시다!**

**성도 여러분!**  
주일 1·2·3부 예배 전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민양성 - 새가족부

# 새생명을 위하여

## 유문건 목사(새가족부 지도교역자)

2012년도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서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가족부는 우리교회에 등록하신 귀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시고 뿌리를 내리셔서, 믿음 안에서 굳건한 한가족이 되시도록 늘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새가족부 시스템이 예년과 달라졌습니다. 먼저 새가족은 202호에서 등록을 하신 후, 602호에서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602호에 오시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부른 후, 담당 목사님의 지도로 '새생명을 위하여' 라는 새가족 교재로 함께 공부합니다.

총 4과로 구성된 새로운 새가족 성경공부 교재는, 타교회에서 우리교회로 전입하신 새가족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게 하는 유익한 기회를 주고, 신앙생활의 첫발을 떤 신입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정수를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깨닫게 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돕는 좋은 교재입니다.

공부를 마친 후 새가족들은 각 반별로 나눠 담당 교사들과 함께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새가족들은 이상의 4주간의 교육을 마친 그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담임 목사님, 새가족이 소속될 교구담당 목사님과 장로님, 다락방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소개와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서울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해당 교구와 다락방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새가족들이 온전히 뿌리내려 믿음의 한가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미소와 포용으로 환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시민양성 - 장년부

# 장년부 성경공부에 함께 합시다



김재근 집사(교육5국 장년부 부장)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12년부터 서울교회의 장년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할지 4주간의 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도목사님은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



약학과 부교수로 계시는 김철홍 목사님입니다.  
주일 1

부 예배를 마치고 2층 본당에서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공부하는 이 시간에는 신약성경의 바울서신(목회서신)을 공부하고 있으며 김철홍 목사님은 우리가 스스로 흥미를 갖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항을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성경 전체를 연결하여 쉽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교육주기는 3년에 걸쳐 총 6학기이며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학기 : 갈라디아서, 빌립보서(2012년 상반기 22주)
- 2학기 :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2012년 하반기 22주)
- 3학기 : 고린도전서(2013년 상반기 22주)
- 4학기 : 고린도후서(2013년 하반기 22주)
- 5학기 : 로마서(2014년 상반기 22주)
- 6학기 : 골로새서, 에베소서(2014년 하반기 22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은 들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들음은 무엇을 듣는다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

씀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준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 샘이 되어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 귀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3장 14절에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하셨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고 하셨습니다.

서울교회 장년부 여러분! 어서 오시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롬 6:22)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공부합시다. 그리고 전하는 자가 됩시다. 함께 하시어 하나님 사랑도 나눕시다.

순례자는 오늘부터 5주에 걸쳐 장년부, 신앙강좌 1부, 신앙강좌2부, 소요리문답부, 소망부 등 주일에 있는 성경공부반을 차례로 소개한다. 다음 주는 신앙강좌1부이다.

전국 시민양성 - 장학금을 받고

# 이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최인에 전도사(영·유아부 지도)

먼저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말씀전하는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며 교육전도사로 세워진 서울교회에 감사드립니다. 15살 때 서울로 이사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찾던 중 하나님은 서울교회로 인도해주셨고,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저는 이종윤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든든히 말씀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잘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을 내어 교회에서 찬양대, 찬양팀, 임원, 핸드벨, 팀장 등을 섬기고 봉사하였

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더 잘 섬기라고 장학금도 많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마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18살 고등부 여름수련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신학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4년 동안 저를 매주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학교의 수업을 통해 훈련시키셨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보여주시며 신학일치의 신앙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어가 신대원에도 진학하여 1년 동안 배우고 2학년이 되는 겨울방학 때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하던 중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서울교회 영유아부전도사를 맡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장학금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며 겸손하게 또 열심히 서울교회에서 헌신하며 허락하신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 교역자로 또한 신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명단

박정선1 이미연 변만중(박재숙) 안치영 아브라함선교회 노종렬 (이윤진) 박내길 차도훈(남태영) (다음 주 계속)

## VISION 2020 후원자 명단

권수정 김광욱(서영희) 김애순 김정영 김유근 김은애 김재령 김재용 김정곤(김수정) 김정자 김창남 도르가전교회 박내길 박재숙 박찬성 박홍래(우미란) 변만중 심화숙 에스더전교회 오광환 오정숙 오정숙 유관모 이성에 이우성 이윤영 이태정 임선영 전봉길 전수자 조정식 진교남 차도훈(남태영) 최영순 한종현 허경화 (다음 주 계속)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일(주) 영등포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한다. 13일(월) 로고스신학회를 주최한다. 17일(금) 장로교 100주년 기념사건전 준비위원 소집을 한다. 18일(토) 장로교표준주석편찬위원회를 소집한다.

■ 임용: 3교구 최문주 집사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섬유패션코디네이션학과 전임교수

■ CBS "새롭게하소서" 출연 : 1교구 이지동 집사, 민효영 집사(민내과&이정형외과의원) 본방 2월 23, 24일 오후 10시 이틀 연속, 재방 24 25일 오전 4시, 오전 10시

■ 이사: 5교구 오수만 정은주 성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5단지 501동 108호

■ 주간식당 봉사: 안드레선교회(2.12) 베드로선교회(2.19)

■ 금주의 식사: 교회 제공

## 그녀의 교회 사랑



중등부 교사인 K 집사님이 화장실의 세면기 손잡이에 끼인 물때를 치솔로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아마도 치솔은 집에서 가져오신 모양입니다.

"뭐 하세요?" 의아하게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해야지요. 조금씩만 신경쓰면 될텐데... 흰한 대낮에도 화장실에 불을 켜고, 손을 닦는 화장지는 두 세장을 겹쳐서 사용하고, 세면기 주변에는 왜 그렇게 물을 흘리는지... 흘렸으면 손닦은 휴지로 한 번만 문질러줘도 좋으련만..." 그녀의 중얼거림에 그만 마음이 꼭 찢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속한 기도 모임에서 먹은 간식은 깨끗이 치웠나요?

오늘 여러분이 속한 부서의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잘 되었나요?

오늘 이윽없이 켜진 등을 보고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요?

오늘 여러분의 부서에서 과도한 난방은 하지 않았나요?

특히 식당이 아닌 곳에서 취식을 하는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내 집, 내 방처럼 깨끗이 훑치고 닦아 오래도록 새 집처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부

## 2012년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수련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 26 (주)~28 (화)	서울교회	나는 빛! 나는 소금!	최인에 전도사
유치부	2. 26 (주)~28 (화)	서울교회	착한 행동을 하나님께!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2. 26 (주)~28 (화)	서울교회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김안성 목사
초등부	2. 26 (주)~28 (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빛!	이신우 전도사
중등부	2. 20 (월)~21 (화)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박노철 목사 / 노정호 목사
사랑부	2.12 (주일)	서울교회	소금과 빛!	한상은 목사
청년1부	2.29 (수)~3.1 (목)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흥하는 청년	박노철 목사 / 박전아 목사
청년2부	3.1 (목)~3.3 (토)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	박노철 목사 / 오세광 목사
에버다부	2.25 (토)	서울교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임규현 목사
영어예배부	2.24 (금)~25 (토)	아가페타운	ppp-Praise, pray, play	박노철 목사 / 스티븐 마티놀리치 목사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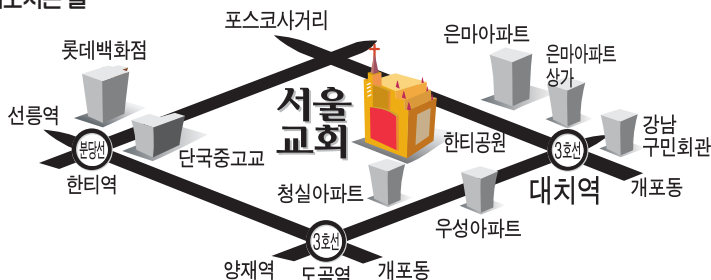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장년부 성경공부를 통해서 말씀과 사랑의 성장을 이루도록
2. 캄보디아에 시작된 우물파기 운동과 교회건축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크게 쓰임 받도록
3.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많은 새교우들이 새생명빈을 통해 큰 은혜 받고 교회에 잘 정착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